

‘50돌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10대 뉴스

한국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고속도로 10대 뉴스 선정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뉴스 선정은 한국도로공사 창립 50주년 기념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국민 4483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다.

지난해 2007년 12월 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인 하이패스(hi-pass)를 전국에 구축한 것이 49%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경부고속도로 개통(1970년 7월)과 버스전용차로제 시행(1994년 9월)이 각각 2위와 3위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졸음쉼터 도입 ▲(최초) 휴게소 개설 ▲통행료 수납 기계화 ▲남북도로 연결 착공식 ▲후불 하이패스카드 도입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 ▲통합채산제 실시 등이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직접 선정해주신 뉴스들은 고속도로 서비스 개선, 교통망 확충 등 공공성 강화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강화와 휴게소 음식

1 하이패스 구축 2 경부고속도로 3 버스전용차로



한국도로공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고속도로 10대 뉴스 선정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사진은 10대 뉴스 중 2위인 경부고속도로 개통 모습.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혁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csh9101@metroseoul.co.kr

- 4 졸음쉼터 도입
- 5 최초 휴게소 개설
- 6 통행료 수납 기계화
- 7 남북도로 연결 착공식
- 8 후불 하이패스카드 도입
- 9 88올림픽고속도로 개통
- 10 통합채산제 실시



외주 표준계약서, 방송사-제작사간 온도차

한국콘텐츠진흥원, 거래관행 분석 특약사항 방송사 ‘긍정’ 제작사 ‘부정’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방송 외주제작 거래관행 전반을 분석한 결과 표준계약서 사용, 특약사항, 선금금 등과 관련해 방송사와 제작사 간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최근 발간한 ‘2018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방송사는 드라마·예능·교양 등 모든 장르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시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100%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제작사는 장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체 외주제작 계약중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통한 계약이 드라마 부문 평균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이하 비드라마) 부문 평균 6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제작비, 협찬·광고, 권리 및 수익배분 등을 규정하는 특약을 동반한 계약서 비율이 제작사 기준으로 드라마 평균 48%, 비드라마 평균 18%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특약작성 시 방송사와 제작사간 상호합의 정도가 방송사는 5점

만점에 5점으로 상호합의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반면, 제작사는 5점 만점에 1점~3점(특약 요소 별로 응답 상이)으로 다소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인 점이다.

선금금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방송사와 제작사 간 응답이 엇갈렸다. 비드라마 장르 외주제작 시 방송사의 89%가 선금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한 반면, 제작사는 50%만이 수령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드라마 장르에서는 방송사의 67%, 제작사의 58%가 지급·수령했다고 답변했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외주제작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사-제작사 조사결과를 상호 비교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며 “진흥원은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 아래 방송 외주거래 실태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표준계약서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제작사들이 방송영상콘텐츠의 창작자로서 저작권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비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7년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경험이 있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제작사) 105개사, 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 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로 진행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HUG, ‘대학생 실무형 교육’ 부산서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부산지역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무형 교육을 진행하는 ‘제2회 HUG 오픈캠퍼스’를 오는 2월 18일부터 6일간 개최한다.

18일 HUG에 따르면 이 행사는 HU

G, 부산시, 지역협력대학 3자가 협업해 취업에 앞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니즈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HUG는 작년에 이어 이번 오픈캠퍼스에 실무교

육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HUG 고유업무, 부동산 이슈, 관련 법령 등을 포함하여 교육과목과 교육기간을 확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지역인재육성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당연한 역할”이라며 “HUG 오픈캠퍼스를 기점으로 앞으로도 훌륭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공공기관 CEO간담회에서 새만금개발공사, KIND 등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작업장 안전관리 등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관리 강화 비용, 문제 없어 위험의 외주화, 다시 정상화해야”

김현미 장관 공공기관 간담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사람과 생명 가치에 비하면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비용증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안전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산하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올해 새롭게 지정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올 한해 업무계획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12월에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원청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그 후속 조치로 범정부적으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부 차원에서도 건설 현장, 철도 분야, 시설물 관리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더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히 올해를 ‘추락사고 줄이기’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줄이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기관장은 안전 위태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 중심의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기존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주청과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철도 분야는 지난 12월 발표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이 현재까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에서는 계속해서 긴장을 늦추지 말고 국민들께서 철도를 믿고 타실 수 있도록 철도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기반시설관리법’ 등 법적 기반을 지난해 마련했다”며 “이제는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적기에 보수·보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등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청인 공공기관이 안전에 책임을 지고 안전관리 수칙을 지키고 설비를 개선한다면 사고 위험은 훨씬 줄어들 수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험을 외주화했던 것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신화 기자

올해 장애인 고용제도·지원사업은?

한국장애인고용공, 내일 사업설명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달 2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 고용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고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장애인고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와 사업체 및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 등 공단의 주요 사업이 소개된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동료지원 활동으로 취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 신설, 직무지도원 배치로 성공적인 취업을 유도하는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맞춤훈련센터 추가 설립 등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이번 사업설명회는 장애인단체·복지관 등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자는 공단홈페이지(<http://www.kead.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201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4%, 민간 3.1%로 상향됐으며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104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세종=최신용 기자